

‘한(恨)’과 ‘한’

미술대학 동양화과 이 중 상

1. 화병(火病) 미국서 정신질환 ‘공인’

한국인의 고유한 정신-신체 현상인 「화병(火病)」이 미국서 정신질환의 하나로 공인되었던 일이 있었다. 1996년 4월 1일자 모 일간지에 삼성강북병원 신경정신과 이시형(李時炯) 박사는 ‘화병이 미국 정신과협회 진단기준 최신판에 「문화결합증후군」의 하나로 등재된데 이어 5월 5일에는 미국정신의학회의 한미(韓美)정신의학분과에서 이를 주제로 한 종합 학술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힌바 있었다. 그 당시 뉴욕서 열리는 종합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측에서 이 박사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신경과의 민성길(閔聖吉) 교수가 연사(演士)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자리에는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신과 의사 2~3백 명이 참석하여 「문화결합증후군」에 관한 정신과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 기사에서 이 박사는 또 “미국의 ‘화병’에 대한 연구는 92년도에 「환자사례보고」가 처음 나왔다”고 밝히면서 그 이전에는 “재미 한인 교포들에게 이 증후군이 나타나도 미국인 정신과 의사들은 이 병을 이해하지 못해 진단조차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국내에서 ‘화병’은 ‘77년도에 이 박사가 체계적인 연구를 처음 발표한 뒤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흥미 있는 것은 ‘화병’의 영문표기가 우리 말 그대로 「Hwapyung」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신과협회의 진단기준에는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불안증, 우울증, 신체화 증상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박사의 말을 빌리자면 “‘화병’이 주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남편의 외도 등 강력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 채 참고 지낼 경우,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가끔씩 가슴에 불을 댕기는 듯한 답답함을 느낀다”고 한다. 바로 이런 증상이 장기간 진행되면 가슴에 맺혀 ‘한(恨)’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제 우리는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한(恨)’에 대한 분명한 병리학적 설명을 들어서 잘 알 수 있듯이 ‘한(恨)’이란 일종의 정신질환에 다름 아닌 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한국예술의 근원적 동인을 ‘한(恨)’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려니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모멸감까지 느낄 때가 있다.

2. ‘한(恨)’과 ‘한’ 그리고 그 관용의 미학

나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몇 분의 문화계 인사들이 입만 열면 한민족의 문화를 통째로 싸잡아서 ‘한(恨)의 예술’ 운운하며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말에 동조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강한 거부감을 가져왔었다. 그러던 중에 이 기사는 평소의 내 생각이 옳았다는 의학적 증거를 찾은 격이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찌되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 특히 국악의 판소리와 같은 민속악이나 셋김굿과 같은 한풀이 민속무를 떠올리며 우리의 문화 전반을 ‘한(恨)의 예술’이라고 단정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굴욕적인 일제치하의 식민문화 속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예술을 점령자의 입장에서 긍휼(矜恤)히 보고, 동정(同情)의 눈으로 찬탄(讚嘆)해 마지않았던 일본인 미학자가 느꼈던 말이었음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그를 무조건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우리 문화예술에 대해 그 만큼 미학적으로 높이 평가해준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어떤 잣대와 속내로 우리 문화예술을 재고 평가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분명한 것은 그의 공과를 엄중히 가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서양의 미학이론을 들먹이며 난생처음 우리 예술이 그의 안목에 매달려 새 옷을 차려입고 우쭐해서 나들이를 한 꼴이고 보니, 서구 신학문에 경도되어 있던 신세대 지식인들이 그의 찬사에 충분히 매료될 만도 했다.

돌이켜 보면 그가 우리들 자신에게 당시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미학적 진가를 자각하게 만드는 데는 크게 일조 한 바가 없지 않으나, 한편으로는 부정적 측면 또한 적지 않음도 냉엄하게 비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만 평생을 예도의 길을 걸어온 화가의 입장에서, 한국 문화예술의 창조적 동인(動因)이 마치 ‘한(恨)’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문화전반을 매도하는 데에 무분별하게 편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를 도저히 간과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다. 진정한 삶의 철학적 고뇌와 창작적 번민을 경험해 본 예술가라면 원한으로 맺혀진 ‘한(恨)’이 결코 창작의 동인이나 사의(寫意)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 터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恨)’이 정신질환의 병리적 증상임을 알게 된 이상 여기에 관련시켜 우리 예술을 더 이상 폄훼(貶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에 한국문화 전반이 ‘한(恨)’의 문화라고 속단한다면 그런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민족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한(恨)’이 맺히도록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억압(抑壓)과 사대(事大)속에 비참해져야만이 훌륭한 예술이 창조된다는 말이 된다. 그러니 이제 와서 이 말의 속뜻에 얼마나 뿌리 깊은 식민근성이 배어있는 말인가를 생각해 볼 일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 예술의 근원은 크고 높고 위대한 ‘카한(kāhan)’사상 즉, ‘한’의 철학에 있는 것이지 결코 위에서 말한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맺힌 ‘한(恨)’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 알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과 긍지를 가져야 하겠다.

한국의 예술은 오히려 너그러움으로 용서하고 고뇌와 환희를 승화시켜 해학(諧謔)에 노니는

달관(達觀)과 풍류(風流)의 관용미학(寬容美學)을 기저로 하고 있음을 믿고, 나는 평생 한국미학의 자생성(自生性)을 화두(話頭)로 그림을 그려왔다(2010년 4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